

“눈빛만 봐도 가락이 만들어지는 사이죠”



8 국악 타악 연주자 이왕재
아쟁연주·작곡가 김선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함께 활동중인 김선제(사진 왼쪽)씨와 이왕재씨는 국악그룹 '황토제'를 통해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악 실내악그룹 '황토제' 김씨 작곡 데뷔하며 인연

무분별 퓨전음악 아쉬워 민속 음악 깡그리 품은 연주그룹 만들고 싶어

“아쟁도 좋지만 박사 과정에서는 작곡이나 지휘를 공부하면 선제 음악 인생에 광풍 타이어를 다는 격이 될 거”라는 선배의 격려에 후배는 웃음을 터트렸다. 인연의 시작은 지난 2000년 김 씨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하면서부터다. 3년 전부터 이미 관현악단에서 활동하던 이 씨는 “오래전부터 아쟁 연주를 잘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궁금증을 가졌었다. 두 사람을 강하게 묶어준 건 국악 실내악그룹 ‘황토제’ 활동이었다. 아쟁 연주와 작곡을 함께 했던 김 씨의 작곡 데뷔곡이 바로 황토제가 위촉했던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김씨는 지금까지 50여곡의 작품을 발표했고, 국립국악원 창작국악 작품 공모에서 ‘국악관현을 위한 Feelings-희노애락’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당시 황토제를 만들 때 멤버들이 쟁쟁했죠. 선제가 직접 아쟁을 다루는 연주자라 악기를 알지 못하는 작곡가들과는 느낌이 다르죠. 타악기도 잘 알아 리듬을 잘 만들어요. 무엇보다 선제가 만드는 장단과 선율 속에는 ‘우리 것’이 담겨 있어

대 후 국악을 그만두기 위해 장구체를 몇 차례 부러뜨렸지만 어느샌가 또 새 체를 깎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고민고민하다 제일 잘 하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동네에서 팽과리를 잘 치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꼭 느그 아버지같이 팽과리 친다’고.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 가락 한자락 못 받았지만 그 피가 흐르고 있었나 봅니다.” 김 씨는 바이올린을 하다가 1대 아쟁을 접했다. 당시 해금을 배우고 있던 한살터를 여동생 선임(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씨 학원에 갔다 우연히 아쟁을 한번 들어보던 그를 본 국악인 신상철 씨에게 한번 배워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전남대 국악과를 수석 졸업한 김씨는 프랑스 예술단체 ‘ZINGARO 단원’으로 뽑혀 3년간 18개국에서 400여회 순회 공연을 하고, 아비뇽 페스티벌 등에 참가하는 등 외국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씨는 4번의 독주회를 열었다. 타악 주자가 독주회를 여는 건 드문 일이다. 요즘엔 장구 하나만 가지고 한 시간을 쳐보면 어떨까 구상중이다. ‘장구야담’이라고 공연제목도 생각해 두었다. “황이 요즘 무지하게 장구를 쳐대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웃음). 형은 자기 공부에 투철한 사람이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연주를 해요. 평소에는 표현하는 게 정적인데, 그분이 들어오시면 굉장하죠. 전 내년쯤 제가 쓴 곡으로만 레퍼토리를 짜 독주회 겸 작곡 발표회를 할 계획이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두 사람은 요즘 퓨전음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 많이 등장하는 건 좋은데 앙상블 구성 등 너무 똑같은 포맷으로 공연하는 것 같아 아쉬워요. 우리 식의 창작음악, 우리 소리, 장단이 배어 있는 창작곡이 아니라 그냥 막 쓰는 거죠. 젊은 친구들의 도전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면 좋겠어요.”(이왕재) 김 씨 역시 창작곡을 쓰고 있지만 그의 뱃속에 흐르는 건 ‘정통 국악’이다. “민속음악이 너무 좋아요. 내 몸에 작작 달라붙는 느낌이지요. 전라도 민속음악을 강끼리 100% 품고 싶어요. ‘뿌리 있는’ 창작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속음악을 정리해 책이나 음반으로 남기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아쉬움은 또 다른 꿈을 꾸게 만든다. 정통 국악에 무게중심을 둔 연주 그룹이다. “사람은 결국 원뿌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봐요. 요즘 국악이 주객이 전도되고, 국적 없는 음악이 돼버리는 것 같아 아쉽죠. 대중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무구적으로 매몰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언제 결성될 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틀도 지어놓고 회차까지 만들 어놓았어요(웃음)” 이 씨의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처음 맞춰봐도 며칠 연습한 것처럼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동료들이 있어 언젠가는 꼭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엄마, ‘빛·과학’ 있는 전시회 가요

광주시립미술관, 5월 17일까지 ‘...예쁜 세상’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오는 5월 17일까지 어린이갤러리에서 ‘빛으로 만나는 예쁜 세상’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현대미술을 재미있게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빛과 과학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구성했다. 전시에는 진시영·김현지·박대현·주지나·손연우·신도원·양은혜·조성호(상상공작소)씨 등 작가 8명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 특징은 뉴미디어아트와 현대미술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다. 진시영의 ‘운주사’는 운주사의 전설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빛, 가상현실, 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신도원의 ‘빛의 예술’은 관람객의 참여로 이루어진 인터랙티브아트

로 다양한 빛을 비추면 소리가 나는 빛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디지털아트다. 손연우의 ‘Whale’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이미지를 담은 작품으로 사랑, 우정 등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김현지, 박대현, 양은혜, 주지나는 실생활을 대중매체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등 개성 있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 주사위 만들기, 캐릭터 색칠공부, 입체카드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고, 상상공작소가 ‘마법의 나라-헨젤과 그레텔’을 주제로 선, 색, 형태, 명암, 기계작동, 착시, 빛 등을 결합한 체험전시를 선보인다. 문의 062-613-715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그건 그건 봄의 소리였네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13일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매월 둘째주 금요일) 3월 행사가 13일 오후 7시30분 문화공간 ‘강숙자 오페라 라인’(임동성당 옆 서광신협 4층)에서 열린다. 이달의 주제는 ‘그건 그건 무슨 소리일까?’로 봄내음 물씬 나는 노래로 꾸며진다. ‘봄이 오면’ ‘나물 캐는 처녀’ ‘봄 처녀’ ‘강이 풀리면’ 등을 함께 부르며 배우는 노래는 KBS FM 우리가곡으로 알려진 ‘소리’(박화목 사, 김동진 곡)다. 회원 연주로 김희숙 씨가 ‘산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려주고, 김종례 씨가 ‘내 맘의 강물’을 부른다. 특히 서울지역 ‘청산가곡’ 회원인 정재균·심상국·강철원 씨가 참여해 ‘압해도’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꿈나무 연주로 광주예술고등학교 ‘크리산테모’ 중창단이 참여해 ‘수선화야’ ‘꽃구름 속에’ 등을 부른다. 특별 초대 손님으로 참여하는 바리톤 고성진(사진) 한서대 교수가 ‘선구자’ ‘못 잊어’를 들려



준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http://cafe.daum.net/gjk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일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시공과 과정
1. 시공전 / 단일베이스코팅시공
2. 단일베이스코팅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